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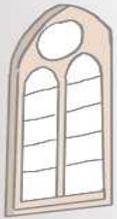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외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항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세상을 넘어 세상 속에서 사는 이들,



성소주일

- [제 1독서] 사도 13, 14.43-52  
 [화답송] 시편 100(99), 1-2.3.5(◎ 3= 참조)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또는 ◎ 알렐루야.)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 2독서] 묵시 7,9.14-17  
 [복음 환호송] 요한 10, 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요한 10,27-30

성가	8시 미사	입당 55	봉헌 510	성체 164	파견 128
	11시 미사	입당 132	봉헌 210 220	성체 154 177	파견 55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부활 제4주일(4월 21일)		부활 제5주일(4월 28일)		부활 제6주일(5월 5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글라라(순희)	조레지나(선덕)	이바오로(명국)	허세실리아(홍숙)	정스텔라(애리)	황테레사(혜정)
제 1 독서	최분도(환준)	김길베르토(광호)	강요한(신호)	최다니엘(대연)	이바오로(명국)	심미카엘(태규)
제 2 독서	임루카(승원)	전베로니카(진영)	김안젤라(영선)	서테레사(춘애)	김안토니오(휘)	심헬레나(승화)

보편지향기도

오늘의 강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언젠가 TV에서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하는 농장을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양들과 염소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양을 부르는 소리와 염소를 부르는 소리가 각각 다른데, 양과 염소들은 각기 자신들을 부를 때에만 반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요한10,27)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여러 번 드셨는데, 당신을 착한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요한10,11)라고 말씀하셨으며, 과연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분명히 착한 목자의 모범을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는 과연 착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따르는 순한 양인가?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나쁜 양인가? 라는 점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 등 소위 백성의 지도자라고 지칭되던 자들이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가보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만의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마태13,13) 어리석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어딘가에 맹목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마음이 온통 자기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대자연과 양심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과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끊임 없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혹은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의 공간도 없이 내 욕심과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는 돈과 명예에 관심이 더 많고, 남편의 출세와 자녀들의 명문학교 입학과 취직에 마음을 빼앗겨 목자의 음성 따위는 전혀 안중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목자가 뭐라고 말하든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운운하는 것은 어리석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잘 따릅니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주님께서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 청소년부 안내

### 1. 부활 제 4주일

- 주일학교 11시
- 영어미사 12시 반

### 2. Fr. Arjen께서 6월 20일까지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떠나셨습니다.

돌아오시기 전까지 우리성당 **영어미사를 집전**해주실 신부님들 안내입니다.

- 4/21 : Fr. Samuel
- 4/28 : Fr. Nguyen
- 5/5 : Fr. Samuel
- 5/12 : Fr. Nguyen

### 3. 주일학교 고등부 Lock-in

- 일시 : 4월 20일 ~ 4월 21일
- 어제, 오늘 양일간 교육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4. 교사/보조 교사 모집(2013년 가을학기)

- 모집 대상 : 학부모님, 대학/대학원생(비영어권)
- 초등학교 저학년반  
(Pre-k 반, Kinder-1학년 반) : 우선 모집 0명
- 청소년부장에게 연락주세요.  
sjbaek(at)gmail.com

### 5. 영어미사는 Kindergarten 학생부터 참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pre-K는 주일학교 후 부모님이 데리고 가셔도 좋습니다.)

부모님들께서 11시 미사 후에 바로 성당을 떠나셔야 한다면, 아이들을 차라리 미사에 데리고 들어가 주세요. 주일학교와 미사를 함께 참석하지 못할 바에야, 주일학교보다 미사 참여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는 **babysitter**가 아닙니다.

### 6. 주일학교 여름 방학 행사(계획 중)

- 영어미사(12시 반)
- 음악교실(매 주일 11시)  
신앙의 해 주제가(작곡 : 김 로사) 한국어로 합창 배우기 외 기타 프로그램

### 7. 여름 성경 학교 : 토요일 (4주간)

\*\* 자세한 여름방학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차차 주보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8. 주일학교 학부모 피정

- 날짜 : 미정, 장소 : 성당
- 주제 : 신앙과 자녀교육
- 지도 : 본당 신부님

### 9. 인터넷 정보

- 소식지: <http://goo.gl/x8azm>
- Twitter: @StAndrewKimYM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착한 목자일까요?

요즈음 ‘착하다’ 또는 ‘나쁘다’ 라는 단어가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말투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는 뜻인데 언제부터인지 ‘착한 성장’, ‘착한 가격’, 심지어 ‘착한 고기’ 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은 ‘착한 남자’ 보다 ‘나쁜 남자’ 를 더 좋아한다고도 합니다. ‘나쁜 남자’ 는 대체적으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유형의 남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고,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끌어냄으로써 상대방을 믿고 따라가도 된다는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착한 남자’ 는 예의 바르고 품성은 고울지 몰라도 왠지 소심하고, 미미하고, 답답한 남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목자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요한 10,27-28)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조가 매우 차분하지만 당신이 어떤 목자인지, 그리고 당신의 양떼와 어떤 운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의 사도인 성 바오로의 말씀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 8,38-39)

‘주님은 나의 목자’ 로 잘 알려진 시편 23장에서 우리는 사랑에 빠진 남녀의 멋진 하루를 함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 상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끌어주는 멋진 남자(목자)가 있고, 그래서 행복한 여자(양떼)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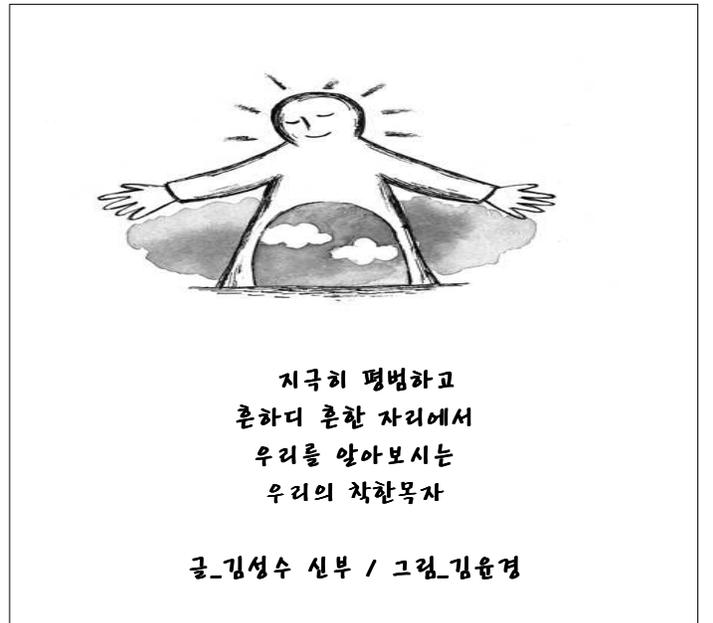
이것저것 묻지 않고도 양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무얼 먹고 싶어 하는지 훤히 알고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양들은 생기가 넘칩니다. 양들은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맹수들의 위험이 닥치면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들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착한 목자” (요한 10,11)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모든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닮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김영국 요셉 신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지극히 평범하고  
흔하디 흔한 자리에서  
우리를 알아보시는  
우리의 착한목자

글\_김성수 신부 / 그림\_김윤경

### 말씀의 향기

하느님은 머리가 참 좋습니다. 혼을 내야 말을 듣는 아이와 타이르고 다독거려야 말을 듣는 아이를 부모가 가려내듯, 하느님께서는 어떤 방식이 저에게 가장 잘 통하는지 너무 잘 아시니까요.

로스쿨 3학년 때, 성 프란치스코와 성 글라라에 관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때만해도 사실 성인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는 너무도 잘생긴 이탈리아 배우가 그윽한 눈으로 성 프란치스코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주님을 알기 전, 아시시라는 이탈리아 마을에서 참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외모였습니다. 캐스팅에 감탄하며 보기 시작한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성 프란치스코를 연기하는 잘 생긴 배우가 아닌, 청년 프란치스코의 삶과 생각에 제 마음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부잣집 상인의 아들이었던 그가 입고 있던 옷마저 벗어 던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지독한 가난을 택하는 과정과 그의 변화에 매료되어 저는 짝이 날 때마다 성 프란치스코의 전기와 시를 찾아 읽었고, 결국 지금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의 말씀 중, “길을 떠날 때에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마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를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탁발 수도자의 삶을 선택했지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남보다 잘 되려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어서, 소위 출세하고 꿈을 실현하고 싶은 욕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가난을 계명으로 삼고 자신을 버리라니요? 저도 더 잘 되려고 공부도 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외국까지 와서 고생을 하는데….

그의 삶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을 현대사회에 실천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잘 따르던 신부님과 이런 고민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卍

### 마음의 가난

족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나쁘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가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 뭘까요? 가난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요. 지금 소은양이 느끼는 힘겨움, 외로움, 스트레스, 부담, 불확실함, 그리고 살면서 겪는 좌절과 실패, 아픔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가난’ 이에요. 그 가난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않고, 기쁘게 끌어안고 열심히 사는 것이 가난을 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될 수 있지요. 이처럼 현실에서도 그분처럼 살아갈 방법은 있어요.”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 던지고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대한 작업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참 머리가 좋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큰 깨달음을 주시려고, 저를 가장 잘 낚을 수 있는 꽃미남 배우를 이용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주님, 진정으로 조금씩 성인을 닮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소는 마리아 / 가수, 변호사

### 머무름

태아 진단은 흔히 낙태를 권고하고  
시술해 주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은 장애나 질병을 가진 생명을  
거부하는 무생학적 낙태를 정당화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종종 장애나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기에겐 기본적인 보살핌,  
심지어 젖을 먹이는 것조차 거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14항 참조

# “성품성사는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 사제직을 받은 사람 모두 아버지 역할을 합니까?”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 시키십니다. 그들을 억압하는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탈출 4,22)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민족이 되고 충성스런 사제직을 수행할 소명을 주셨기에 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느님의 맏아들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강생의 신비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 충실한 맏아들이시고, 하느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사제이십니다.(히브 1,6; 10,21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열두 사도를 불러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하느님의 아들이라 믿고, 구세주요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총으로 세례를 통해 하나의 믿음 속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당신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맡기며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 21,17)하는 특별한 직무를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죽음의 힘에도 굴복하지 않고 세상 끝 날까지 계속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성사로 교회 안에서 드러납니다. 성사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감각적, 상징적으로 표현된 거룩한 표지입니다.

성사는 언제나 살아 계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힘이며 성령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를 건설하고 인도하는 도구로 삼으신 성사를 수행하는 특별한 직무 곧 사제직은 성품성사를 통하여 전수되어 집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547항 참조)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성품성사를 통한 사제직에 계승되어 현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 유일한 참사제이시고 다른 사제들은 그리

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성품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사제를 통해 활동하고 구원을 이루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므로 사제에게 결함이 있다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활동이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성사의 영적인 힘은 빛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조명을 받을 그 빛이 비록 결함 있는 사람을 거쳐 오더라도 그 빛은 결코 변하거나 오염되지 않습니다.

“사제는 진리의 옹호자이며 천사들과 함께 일어서고 대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늘의 제대에 희생 제물이 오르게 하고 그리스도 사제직에 참여하며 인간의 면모를 새롭게 하여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저 높은 곳을 위하여 일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589항)

사제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입니다. 그는 하느님 앞에서 많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사제직을 받은 모든 이는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과 인성을 전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코린 4,15)

※참고 : 가톨릭교회교리서

1533-1540항, 1544-1553항, 1577-1589항

사목국 연구실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날짜	연	지 향	봉 헌 자
4월 21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한다윗(홍석)	한수산나(서연)
	연	서라이문도	가족
	연	최마틸다	한발레리아
	연	신발바라/김바오로	이아나스타시아
	생	김요셉피나(경자)	윤루카/루시아
4월 23일 화	연	최베드로(취중)	가족
	연	서라이문도	가족
4월 24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연	서라이문도	가족
	연	부모님 기일	임루시아
4월 25일 목	연	서라이문도	가족
	생	박헬레나	김유릿다
4월 26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연	서라이문도	가족
4월 27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연	서라이문도	가족
	생	Justin Lee	이막달레나

~~~~~ 새로 오신 분 ~~~~~

\* 8-2(버클리) 구역

이기환 아오스딩/박미령 세실리아 가정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 구분     | 8시    | 11시     | 영어미사 | 합계      |
|--------|-------|---------|------|---------|
| 미사참석인원 | 86    | 220     | 46   | 352     |
| 헌 금    | \$592 | \$1,240 | \$47 | \$1,879 |

< 교무금 > \$2,650

김영순(3-4) 이영기(3-4) 정창희(4) 팽현팔(4)  
이정연(5) 윤순의(3-4) 김영희(4) 육승주(4)  
이인학(1-3) 윤성일(4) 한서연(5-6) 허동원(4)  
박일환(4) 최몽렬(3-4) 김관수(3-4) 정옥임(3-4)

< 성소후원금 > \$120

정창희(4) 원광희(2012/2013) 윤성일(4)

< Bishop's Appeal >

정창희(4)

< Rice Bowl > \$916.34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 지난주          | 금 주 | 누 계          |
|-----|--------------|-----|--------------|
| 약정액 | \$311,015.28 | -   | \$311,015.28 |
| 봉헌금 | \$291,545.28 | -   | \$291,545.28 |

\*약정자 : -

\*금주봉헌자 : -

\*총 230세대 중 185세대가 약정해 주셨습니다.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 오늘 미사 중

◆ 2차 헌금 안내

4월 28일 : Catholic Home Missions Appeal

◆ 성모의 밤 미사 : 5월 4일(토) 저녁 8시

- \*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 구리아월례회 : 5월 11일(토) 아침미사 후
- \*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봉헌을 준비해 주십시오.
- \* 단체별 꽃봉헌은 각 단체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 성모의 밤 개인 꽃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성경공부 : 매월 첫째주일/셋째주 금요일 저녁 7시반
- 기도모임 : 매주일 10시 ~ 10시 40분 1회의실
- \* 평협회의 : 4월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요셉회 : 4월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사목회의 : 4월 28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재속프란치스코회 모임

4월 27일(토) 오후 12시 30분 교육관 106호실  
\* 프란치스코 영성을 배우고자 하시는 지원자를 모집 중입니다.

◆ 북가주 한인 천주교 연합 골프대회

일시 : 5월 18일(토) 오후 12시 반(샷건)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s  
10051 Doolittle Dr. Oakland  
참가비 : 남자개인 \$90 여자개인 \$80 부부 \$150  
문의 및 접수 : 변귀태 성우안토니오 707-696-7743  
김철우 가브리엘 510-910-2239

4월 구역모임 **지에서 17-18장**

|       |              |                   |
|-------|--------------|-------------------|
| 1 구역  | 4월21일(일) 6시  | 신정은 미카엘라 댁        |
| 2 구역  | 4월28일(일) 6시  | 배짚마 댁             |
| 5 구역  | 4월28일(일) 미사후 | 대건회관              |
| 6 구역  | 4월27일(토) 6시  | 김원덕 시몬 댁          |
| 8-2구역 | 4월27일(토) 6시  | Four Corners Room |
| 10 구역 | 4월28일(일) 미사후 | 교육관 106호          |

◆ 북가주 ME 25차 첫 주말

일시 : 7월 5일(금) ~ 7월 7일(일) 2박 3일  
장소 : 산다미아노 피정센터(덴빌 소재)  
문의 : 한치용 요셉/한현자 헬레나 415-810-3175

◆ 2013 FIAT 장학금 프로그램

신청자격 : 북미주 거주 한인 가톨릭 학생(고등학교 12, 대학생, 대학원생)으로서 소속 본당이나 지역 신앙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자  
신청마감 : 5월 31일  
신청서 다운로드 : FIAT 웹사이트([www.fiat.org](http://www.fiat.org))  
신청문의 : [fiat@fiat.org](mailto:fiat@fiat.org), 714-702-9830

◆ 빈첸시오 125차 홀리스 저녁봉사

일시 : 매주 넷째주 목요일(4월 25일) 오후 4시  
문의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안국학교 소식

\* 2013년 가을 학기 기초반 교사 모집  
- 문의 : 정인경 가브리엘라  
[ikkim324@yahoo.com](mailto:ikkim324@yahoo.com)